

정부기관 소식

농림수산식품부
소식



전북 전주서 업무보고

농림수산식품부는 3월 18일(화) 전라북도 전주시에 위치한 생물산업진흥원 컨벤션센터에서 “농어업에 밀물시대를 열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2008년 업무보고’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는 이명박 대통령,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제 4정조위원장, 농림수산식품부 국장급 이상 간부 등 6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날 업무보고는 종래 틀에 박힌 업무보고와 형식을 지양하고 ‘돈 버는 농어업, 살맛나는 농어촌’ 달성을 위한 이명박정부의 정책기조를 담아 구체적이고 실천가능한 정책위주의 내용으로 작성하여 보고하였다. 이날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림수산식



품산업의 현황과 그간의 정책을 평가하고 농식품 유통혁신, 핵심인력 양성, 식품산업 육성, 농어업인 복지지원 강화, 규제완화 추진, 조직융합방안 등 새 정부가 추진할 주요 정책방향을 보고하였다.

검역원 소식



일본 동물위생연구소와 조류인플루엔자 국제공동연구 추진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동물위생연구소는 지난 3월 18일 일본 동물위생연구소와 조류인플루엔자에 관한 국제공동연구를 추진키로 하고, 이를 위해 일본 동물위생연구소의 겐지 트수카모토 박사를 모시고 세미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한·일 양국은 해마다 한일농림수산기술협력위원회를 개최해 오고 있으며, 지난 2006년 말 제39차 협의회에서 국제협력의 필요한 분야에서의 양국간 상호 연구협력에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일본 동물위생연구소는 지난해 9월 18일 일본 이바라키현에서 기술정보교환 및 연구인력교류 등 공동 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연구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으며, 양국의 공





통 관심사인 “야생조류에서의 조류인플루엔자 예찰 및 공통 바이러스 뱅크 구축”을 목적으로 국제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일본 동물위생연구소의 Kenji Tsukamoto 박사의 이번 방문은 국제공동연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상호 연구결과 교환 및 향후 연구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가 이루어졌다.

세미나를 통해 Kenji Tsukamoto 박사는 최근 4년간의 일본 야생조류에서의 조류인플루엔자 예찰 실적과 새로 개발한 유전자검출법(RT-PCR법을 이용한 혈청형 동정법)을 소개하였다.

향후 양국은 지속적인 기술정보 교류를 통해 조류인플루엔자 예찰 및 방역활동에 보조를 맞추고, 조류인플루엔자 방제에 공동 대응함으로써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의 청정화 유지 및 동북아 방역대책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농촌진흥청
소식



이수화 신임 농촌진흥청장 취임

농촌진흥청 이수화 신임 청장은 3월 8일(토) 취임식 직후 청 내 실국을 시작으로 9일 소속기관 업무보



▶농촌진흥청 이수화 신임청장

고 내용을 청취하고 강도 높은 창의와 혁신을 주문했다. 이 청장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FTA 등 개방화시대에 대응하여 새 정부가 표방하는 농식품 산업의 육성, 농업의 2·3차 산업화, 해외

시장의 개척을 통한 수출농업의 활성화 등 변화된 환경에 맞게 농촌진흥청의 조직과 하는 일을 획기적으로 개혁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조직문화의 혁신, 실용적인 연구 성과를 높이는 방안, 경영을 생각하는 기술이 농촌 현장에 신속하게 보급되어 농가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 현장 중심의 기술보급체계가 확고하게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농촌진흥공직자는 농업을 완전히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고, 열정적인 창의가 발휘되어야 농업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조할 수 있다며, 비용편익분석(Benefit-Cost Ratio Analysis) 없는 연구사업은 무의미하고, 현장경영에 중점을 두고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수요자와 네트워킹을 통한 홍보로 관계를 개선하는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하였다.

신임 이수화 농촌진흥청장은 '55년 1월 16일생으로 경북 청도 출생으로, 경북고등학교와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와 미국 미주리대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 및 박사학위를 마쳤으며, 대학재학시 행정고시(19회)에 합격한 후 농림부에서 잔뼈가 굵은 정통 농업관료로서 '금융정책의 효과 측정연구', '피서가설과 불확실성의 영향분석', '조건불리지역 및 환경보전에 대

정부기관 소식

한 직접지불제도 조사 연구', '일주일에 읽는 농업경제원론' 등의 저서를 낸 경제전문가이다.

방역본부 소식



구제역 유입방지 위해 '현장밀착형 방역활동' 전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구제역(FMD) 재발생 방지를 위하여 특별방역기간인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우제류 가축에 대한 시료채취는 물론 농장방역 실태에 대한 정보수집, 순회점검 등 현장밀착형 활동을 방역취약농가 중심으로 적극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상호 본부장은 지난 2월 29일 「구제역특별대책상황실」 현판식을 가진 자리에서 “최근 들어 국제적 발생은 감소하였지만 인접국가인 중국·북한의 발생, 베트남 등 다발국가와의 국제교류 증가, 사료가격 급증과 소모성질환 발생에 따라 경영이 악화된 농장의 방역활동 소홀 등으로 유입 가능성은 높은 상황”이라며, “적극적으로 농장단위의 방역실태 순회점검을 실시하고 철저한 농장소독, 의심축 신고, 발생국 여행자제, 외국인근로자 관리 철저 등 농장 현장지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방역본부는 구제역 특별방역기간동안 중앙본부·8개 도본부에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고, 구제역 유입·발생시 신속한 상황실·교통통제소 설치와 살처분을 지원하게 될 ‘초동방역팀’을 편성하여 긴급동원에 대비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구제역의 신속한 검색을 위해서 특별방역기간 동안 950호 4,720두의 시료를 채취하고, 53천호에 대한 농장 순회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사양관리가 미흡한 농가, 외국인근로자 고용농가, 발생국 방문농가 등 방역이 취약한 2천여 농가를 집중 관리키로 했다.

매주 수요일 「전국 일제소독의 날」에는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방역취약농장에 대한 소독활동을 지원하며, 방역훈련(CPX)·지역방역협의회 등 유관기관의 구제역 예방대책 활동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양축농가의 자율방역의식 고취를 위하여 ‘방역·위생’ 정보지와 리후렛,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농장 소독요령·예방수칙, 의심축 신고 등의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한·육우, 돼지 등 우제류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맞춤형 농가교육을 실시한다.

아울러 양축농가의 자율방역의식 고취를 위하여 ‘방역·위생’ 정보지와 리후렛,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농장 소독요령·예방수칙, 의심축 신고 등의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한·육우, 돼지 등 우제류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맞춤형 농가교육을 실시한다.



▶방역본부는 지난 2월 29일 「구제역특별대책상황실」현판식을 갖고 적극적인 현장밀착형 방역활동을 위하여 결의를 다졌다.

